제 65호 분위기 조성하기 1: 옷차림

"강의할 적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좋은가요?" 저희 대학교 남자 신임교수들이 제게 가장 흔히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자 교수님께도 다분히 적용됩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교수가 정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좀 느긋하게 평상복을 입어도 괜찮은가 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 정장하시는 편이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교수가 헐렁한 반바지와 티-샤쓰 차림에 나막신 같은 신발을 끌고 강의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복장이 눈에 띄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동시 신임교수들은 선택을 해야하는 부담도 지게되지요. 만일 넥타이를 메는 (정장하는) 것이 강의평가에 유리하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하는 판국이니까요.

저는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강의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강의의 첫 이 삼 주 동안은 빠짐없이 넥타이에 자켓까지 걸쳐 입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정장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최소 "안전" 거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꼬인 말같이 되어버렸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시대에는 교수님이 지식을 독점한 권위자로서 행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위에서 군림할 수도 없습니다. 새 시대는 연기자와 관람객이 함께 어울리는 한국의 마당놀이처럼 강의실에서도 교수님과 학생이 지적 한마당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시대 교수법 p.25). 따라서 교수의 목소리가 위엄에 꽉 차서 탁하게 나오면 안되고, 교수님의 눈이 경직된 목 때문에 학생들을 아래로 내려 깔아보면 안되고, 교수의 몸짓에서 거드름이 피어나면 안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가끔 교수님을 얕잡아 보는 소위 "권위주의에 이미 길들어진 불쌍한 학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어린애와 놀다 보면 어른 머리꼭대기로 기어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옷차림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옷은 사실 사람의 미각이나 선호하는 스타일을 나타낼 줄뿐만 아니고 가치관과 심리상태마저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옷은 신분을 구분해주고, 사람들간에 거리를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옷의 이러한 상징적 효과를 이용하여 비록 언행으로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지만 비구어적 메시지로 최소한도의 거리를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옷차림을 강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서로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며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조정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수님의 옷차림이 이미 정장인데 또 말투와 행동 하나 하나마저도 교수님이 학생 눈에는 마냥 어려운 존재로 비쳐 진다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가 멀어질 뿐입니다. 물론 존경의 대상은 되어도 교육 효과를 내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첫 이 삼 주 동안에는 정장을 하다가도 그 후로는 편한 옷도 입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호에 설명하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무슨 학자가 옷차림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한다니...쯧쯧. 맞습니다. 공부하는 학자가 옷차림에 신경 써서야 안 되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옷차림마저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마음) 쓰는 것하고, 겉 멋 부리기 위해 옷차림에 신경(돈) 쓰는 것은 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벽**, 2000